

“참된 평화”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신부님, 제가 점을 봤는데요. 그것도 죄가 되나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점괘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잘 나오셨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평화’라는 단어에 시선을 두려 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이니까요. 우리의 시선을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맞추어 봅시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운세나 점 등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점을 보았을 때 점괘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점괘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점괘가 좋지 않게 나오면 매우 불안해집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두렵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더욱 불안해져 참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마음과 영혼은 지쳐버립니다. 운세나 점괘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때론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을 어떻게 선택할지 알 수 없기에 사람의 미래는 어떤 용한 점쟁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삶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물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조정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이든, 그 선택이 옳든 그릇되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옆에서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조차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로 바꾸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그분을 사랑하는데 힘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사실 것이고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규현(가톨릭로보로메오) 신부

<성령 선생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계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서로가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이야말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만큼 하느님께서 좋아 하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라 해야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며 지내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서도 상대가 기뻐하도록 마음을 쏟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시시마다 때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며 말마디를 살피고 행동거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이끌도록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선생님이란 진리를 깨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셨듯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께서 직접 일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의 짝이 되고 싶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를 일깨우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선생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을 최고로 많이 가장 철저히 정말 기쁘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임을 일깨우십니다. 그날 성령께서는 지혜로운 선생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가 “목숨을 내놓은”채 복음사업에 매진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내 삶을 살피도록 이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아들에게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 선생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새깁니다. 곁에서 알려주고 일러주고 가르치는 성령 선생님의 말씀을 흘려 들을 때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오늘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랑함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좋으신 성령 선생님의 가르침을 성실히 익혀 우리 모두가 그분사랑의 전령으로 파견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그분나라에서 “전능하신 주 하느님”의 영광을 빚는 축복에 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재봉 신부님

성모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에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 당 소 식

◎ 유아세례 안내

오늘 미사중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어린이 : 박지수 마리아, 박지희 줄리아, 박지우 솔론몬 전효, 전지민

◎ 6월 사목회의 안내

▶5월 30일 미사 후 교육관

사목 위원과 단체장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 5월 구역 모임 안내

▶키치너 22일 6시 야외 모임

▶브랜포드 28일 7시 박 순웅 형제덕

▶캠브리지 21일 7시30분 박 용대 형제덕

▶워털루 1구역 29일 6시 황 규영 형제덕

2구역 15일 6시 전 경숙 자매덕

3구역 22일 7시 박 영진 형제덕

4구역 29일 6시 최 우석 형제덕

◎ 5월 올드레야 안내

▶5월 23일 미사 후 교육관

▶안내: 회합 후 식사 예정

▶문의: 김현태 간사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시간변경)

▶일 시 ; 5월 21일(금) 오후 7시

▶장 소 : 이 은희 자매덕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안내/헌금 담당

▶6월 : 캠브리지 구역

▶7월 : 브랜포드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6월 : 브랜포드

7월 : 캠브리지

◎ 순회 영사 업무 안내

▶일 시: 2010. 5. 18(화) 11:00 - 15:00

▶장 소: 키치너 주님의교회

▶문 의: 워털루웰링톤 한인회 회장
(519-716-5701)

◎ 워털루/웨링톤 한인회 골프대회 안내

▶Tee Off : 2010년 5월 31 월요일 오후12:30, Shot Gun 방식

▶장소 : Grey Silo Golf Course

▶참가비 : \$70.00 (파워카트, 간식, 석식 포함).

▶문의: 박용대 바오로 형제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5월 2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44.25

교 무 금 : \$ 775.00 103(50), 105(20), 112(100), 116(60), 120(10), 124(50), 130(20), 133(60), 137(300), 150(5), 152(50), 166(50)

감사헌금 : \$

성전건립 : \$ 5.00 150(5)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 (\$5815.00)

합 계 : \$ 1519.25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19호

2010. 5. 9.

부활 제 6 주일

해설 고 영호

차주 해설 박 명옥

성 가

입 당 (143) 진리의 성령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되 장 (138) 만왕의 왕

화 답 송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 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영성체 후 묵상

성령께서 현존하심을 느끼려면 자신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산다면 성령 체험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번쯤, 지식도, 이론도 버리고, 어린이처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면, 주님께서는 비운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독 서

5월 9일 류무열 최희수

5월 16일 고덕근 고세형

봉 헌

5월 9일 정동근 이윤경

5월 16일 류무열 최희수

복 사

5월 9일 구한힘 김건우

5월 16일 류지현 이수민